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35%가 '마음 건강' 적신호

알코올 중독 비율 30.2% … 전국 평균보다 11배 이상 높아 '심각'
광주시, 10개 단지 '열린마음 상담센터' 운영…고위험군 밀착 케어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정신건강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입주민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비율 또한 전국 평균을 10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가 수립한 '2026년 취약지구 열린마음 상담센터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4.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국 정신장애 유병률인 8.5%와 비교해 4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알코올 중독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의 30.2%가 알코올 중독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2.6%)의 1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밀집해 있는 주거 특성상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중독 및 정신건강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예산 5억 1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약 1만 4500세대)를 대상으로 '취약지구 열린마음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 고위험군 조기 발굴에 나선다.

'열린마음 상담센터'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아파트 단지에 상주하거나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선별검사, 심층 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

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33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1만 423건의 사례관리 실적을 거두며 '마음돌봄'의 최일선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올해는 특히 서구 쌍촌단지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시는 이곳에 5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 '쌍촌 열린마음 상담센터 기능보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정신건강 조기 선별과 위기 개입 등 지역 맞춤형 특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시는 서구 금호시영3, 쌍촌주공1, 쌍촌시영3, 북구 각화주공2, 두암주공2·4, 오지주공1 등 총 10곳의 영구임대단지에서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 인력 11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광주시 건강위생과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중독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주민들이 많아 이웃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이 절실했던 곳"이라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이 힘든 주민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총리 "부동산 기조 안 바뀐다"

"수요 억제책 열마든지 구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명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둘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해석했다.

그는 "과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 시작한 기조를 지키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푼다, 안정적

공급을 지속한다, 과도한 수요는 금융 등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한다, 세제 등을 통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되, 어떠한 정책도 배제하지 않는다, 밝힌 입장은 일관되게 실행한다 등 5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과 관련해 일정한 수요 통제책을 썼고, 일정한 효과를 봤다"며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에 수도권에 내실 있는 공급을 늘릴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열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집중적인 트윗은 이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다,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해서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증-166833호]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 출마 선언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일자리 창출·소득증대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초대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는 역사·정서적으로 언제나 하나의 생활·경제·문화권이었다"며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청년 세대가 고향을 등지지 않게 만드는 확실한 해법"이라며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통합 특별시의 5대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전남의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기 위해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 및 우선 지원'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부, 중부, 서부, 광주 등 4개 권역을 각각 대표하는 4명의 부시장을 임명해 상시적인 지역 균형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 의원은 광주·전남 전역을 4개의 기능적 권역으로 나누어 상호 분업과 순환을 꾀하는 '신경제지도' 정사진도 공개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은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정'을 신설해 우주항공



민형배 의원이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통합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및 첨단 소재 산업의 전진기지로, 목포·신안·해남 등 서부권은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통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된다.

또 나주·강진 등 중부권은 스마트 농어업과 바이오·치유 산업의 거점으로 광주와 인근 시·군은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 등을 유치해 AI와 문화, 생활경제의 중심축으로 재편된다.

아울러 민 의원은 '기본소득'을 통합 도시의 핵심 정책 브랜드로 내걸었다. 서부권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얻은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 형태

로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 불안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각각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시작해 16년간 정치적 행보를 같이 이어 왔다"며 "대통령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힘 있는 시장이 나와야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아시아문화도시조성위원회에 '바위섬' 가수 김원중

광주 문화인사 장관급에 임명

"문화중심도시 성장에 기여할 것"



이자 광주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인 만큼 광주를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끌게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제

도,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해 심의 및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거쳤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관련 분야를 연구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는 만큼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이사장 및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환경운동 경험을 갖춘 점이 인선 배경이 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역 간 물 갈등 해소, 4대강 재자연화 등 산적한 과제를 균형감 있게 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픽록 기자 kroh@kwangju.co.kr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